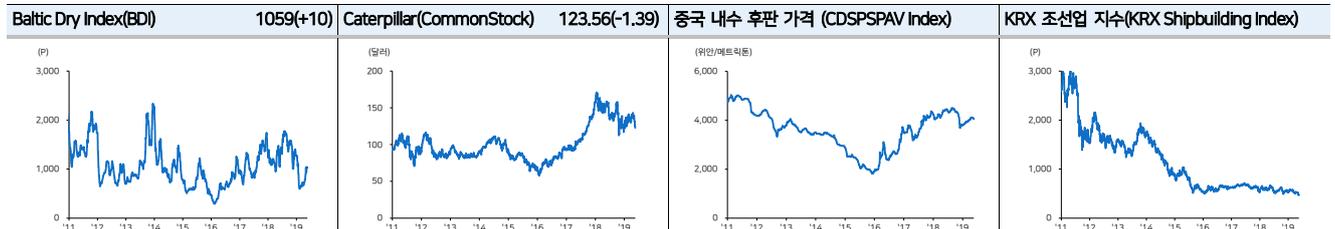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714.3	16.2	109,000	1.9	-9.2	-18.4	-15.2	76.0	36.4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000.0	21.3	306,500	0.3	-10.0	-15.1	-11.4	4.1	3.4	0.5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60.3	6.3	17,700	-1.7	-26.1	-45.8	-20.3	1.7	1.5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07.7	11.0	41,000	-3.0	-15.2	-27.0	-4.0	2.6	1.9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4,800.6	20.0	7,630	0.0	-8.3	-18.0	3.0	48.1	23.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071.4	11.5	28,650	-0.9	-0.7	-11.6	-16.1	10.0	11.6	0.8	0.8	9.0	6.0
현대미포조선	1,965.2	13.4	49,150	0.0	-13.5	-21.6	-18.1	10.6	7.7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18.9	1.4	8,180	-8.4	N/A	37.5	-1.1	164.5	41.1	1.2	1.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02.5	21.4	81,100	1.1	-8.0	-32.4	-24.2	14.3	13.9	2.0	1.8	14.6	13.3
두산밥캣	3,218.0	25.3	32,100	0.5	1.6	1.9	1.9	11.8	11.1	0.9	0.9	7.4	7.6
현대로템	1,649.0	4.2	19,400	0.5	-14.7	-31.8	-30.3	25.0	17.1	1.1	1.0	4.5	6.3
하이룩코리아	230.1	46.9	16,900	-2.9	-15.1	-8.6	2.7	7.7	7.0	0.7	0.6	8.8	9.0
성광밴드	318.9	17.4	11,150	0.0	-1.8	0.9	-2.2	985.6	40.0	0.7	0.7	0.1	1.8
태광	278.3	11.6	10,500	-1.4	-8.7	-7.5	-10.3	62.7	30.6	0.7	0.6	1.0	2.1
두산중공업	844.3	9.5	6,050	-0.7	-13.3	-16.0	-27.9	-18.2	10.7	0.3	0.4	-0.1	2.8
두산인프라코어	1,348.9	16.2	6,480	0.3	-11.5	-16.7	-14.6	4.4	4.8	0.7	0.6	17.7	13.4
HSD엔진	137.9	3.4	4,185	0.5	0.5	-13.8	-20.7	-11.0	N/A	0.6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085.1	15.7	31,650	2.6	-10.6	-12.0	-0.8	46.2	20.4	2.8	2.6	6.1	13.6
한화테크윈	1,657.5	14.4	31,850	7.4	2.9	-4.5	-2.0	132.0	25.4	0.7	0.7	0.6	2.8
LIG넥스원	752.4	7.4	34,200	1.0	-10.8	-13.0	-7.4	78.8	36.3	1.5	1.2	2.4	3.4
태웅	187.9	3.7	9,390	3.5	-10.6	-15.4	-10.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57.7	6.9	9,550	-2.7	8.0	8.4	23.7	-20.1	14.6	3.5	2.8	-16.2	21.6
한국카본	346.4	15.3	7,880	-2.1	-1.4	-4.0	11.9	122.7	21.9	1.1	1.1	0.9	5.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World fleet hits 2bn dwt for first time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 초 글로벌 선박량은 19억DWT였으나, 5월에 20억 DWT를 돌파함. 선박량이 10억DWT를 기록한 시기는 13년 전으로, 13년 간 CAGR 기준 5.4%로 성장함. 신규 선박은 2.6만척으로, 벌크선이 50%임. 향후 글로벌 선대는 연간 3%씩 성장해, 30억DWT에 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4년 정도로 예상함. (TradeWinds)

Refinery restarts herald a pick-up in tanker rates

올해 상반기 이후 둔화된 글로벌 정유사의 생산량이 하반기로 접어들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탱커 수요도 함께 증가해 운임상승이 예상된다. 많은 정유사들이 저유황유 생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겨울과 봄 사이에 시행하는 정기보수를 2분기로 연기함. IEA에 따르면 정기보수에 투입된 물량들이 다음 주부터 재가동되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TradeWinds)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 7월로 연장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월 22일에서 7월 22일까지로 두 달 연장함. 이번이 세 번째 연장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했을 때 3차 매각이 마지막 기회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창원지법은 6월 7일까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 향서(LOI)를 접수하고, 13일부터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임. (이투데이)

Hunter Group set to spear profit on double VLCC sale at eye-catching price

Hunter Group은 2018년 VLCC 신조선 인도를 통해 시장에 진출, 현재 VLCC 2척 매각을 위해 협상 중으로 알려짐. 협상은 진전되고 있으며, VLCC 판매가는 척당 9,800만달러 수준임. 이는 Clarksons 2016년 초에 집계한 VLCC Resale 가격인 9,300만달러보다 높으며, 최초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던 선가 8,220~8,280만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TradeWinds)

Golar LNG, 향후 FLNG부문 집중 공략

Golar LNG는 LNG선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향후 FLNG 및 다운스트림 사업에 주력하기로 결정함. 이로써 핵심 사업은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LNG 인프라 사업임. Golar은 1분기에 FLNG 부문에서 Cameroon 해상에 투입한 FLNG 개조선에 힘입어 5,800만달러 영업수익을 기록함. FLNG를 성공적으로 운항하며,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美, 中 '빅브라더 산업' 거냥...中 CCTV 업계 제재 추진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CCTV 제조업체인 하이커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짐.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부품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함. 하이커비전은 중국 선전증시에 상장, 제재 검토 보도와 함께 선전증시에서 장중 9.6%까지 급락함. (연합뉴스)